



“담배 광고로 10대 흡연인구 증가”

미 질병통제·예방 센터(CDC)는 지난 80년대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인구 급증이 담배제조회사들의 대규모 판촉활동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미 연방 산하기관인 이 센터는 담배 회사들이 판촉을 위해 7억 7천만달러 상당의 담배를 무료 배포한 지난 80년, 14~17세의 나이에 흡연을 첫 시작한 인구가 이 연령층 전체의 5.4%이던 것이 84년에는 4.7%로 떨어졌으나 32억 달러의 거액을 들여 모자, T-셔츠, 쿠폰 등을 뿌린 89년에는 5.5%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CDC는 미 담배제조회사들이 미정 부기관에 제출한 광고비 등의 지출내역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특히 레널즈사가 담배광고 및 촉진을 위해 대중에 인기있는 낙타그림을 도입했을 당시인 지난 88년에는 이들 연령층 흡연인구가 6.3%를 차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CDC에 따르면 성인들의 흡연인구는 지난 80년 33.2%에서 지난 90년에는 25.5%로 크게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담배제조회사들은 CDC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CDC의 자체 자

료조사에서는 10대들의 흡연이 10% 정도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담배회사들이 한해에 담배 판매 광고를 위해 40억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10대들에게 담배구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비만도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CDC의 흡연 및 건강관련 연구담당 수석 연구책임자인 마이클 에릭슨씨는 담배회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정부에서 공표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 잘못 분석한 결론이라고 응수했다.

CDC에 의하면 미국내 10대 흡연 인구는 최소한 3백만명이며, 성인흡연 인구중 83%가 18세때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어린이들에, 물집 생기는 병 만연

일본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근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 확산됐으나 이달 초를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후생성 관리들이 밝혔다.

고열과 함께 입, 손가락, 발가락 사

이에 물질이 생기는 이 병에 걸린 환자 수는 지난 8일 현재 1개 병원당 6.3명을 기록, 지난 90년의 6.1명을 상회했다.

전국 2천4백개 소아과와 내과 병원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에 따르면 환자수는 병원당 평균 0.6명이던 지난 5월 13일부터 급증하기 시작, 이달 1일에는 6.1명을 기록했으며, 이후 증가율이 줄기 시작했다고 후생성 관리들은 말했다.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유아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주로 발병하나 1주일 내지 10일 안에 치료된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 대부분은 한 살~세살짜리 아기들이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접촉하면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

흡연여성, 편평상피암 위험 높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치명적은 아니지만 피부변형으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편평상피암이 발생할 위험이 약 50%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병원의 프랜신 그로드스타인 박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회보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0만7천9백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성간호사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피우는 여성

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 편평상피암에 걸릴 위험이 약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로드스타인 박사는 그러나 과거에 일광욕으로 반복적으로 피부를 태운 경험이 있는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일광욕으로 인해 내재하고 있던 피부암 위험을 흡연이 더욱 높여주는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로드스타인 박사는 또 검은 머리의 여성은 짙은 갈색 머리의 여성에 비해 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50% 낮으며 붉은 머리의 여성은 짙은 갈색 머리의 여성에 비해 피부암이 발생할 위험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편평상피암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과는 달리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양성피부암의 일종이다.

